

본문 : 시편 133 편 1-3 절

제목 : 영생 공동체

1. 숙제 검사

제가 2022 년 9 월 첫 주에 다하나교회에 부임하였으니, 오늘이 제가 여러분과의 동행을 시작한 지 만 2 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 년 전, 저의 첫 설교 본문이 바로 시편 133 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본문이 교회로 모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하면서도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선생님의 숙제 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담임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이지요. “너희들 잘 하고 있니? 해보니 어때?” 하시면서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친절하신 담임 선생님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만드시고자 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 되새기고 숙제 검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첫 소절은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좋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애기인가요? 좋다는 말이죠. 어려운 말로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강한 긍정을 표현할 때 쓰는 의문문이지요. “내가 너한테 이것 하나 못 사주겠어?” 무슨 말인가요? 너에게 이것 사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하면 Hine, ma tov wu ma naim! 입니다. Hine 는 “여기 좀 봐요. Behold” 이런 뜻입니다. 내가 뒤에서 할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hine 를 사용하죠.

바로 뒤에는 how 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 ma 에 각각 형용사가 붙습니다. Good 이라는 뜻의 Tov 와 Pleasant 라는 뜻의 naim 앞에 각각 ma 라는 의문사가 결합합니다. “여기 좀 봐봐.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좀 봐보라니까?” 이런 감탄과 감격의 뉘앙스가 이 짧은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좋고 즐겁다고 하는 것인가요?

“Shebet Akhim gam yakhad.” Shebet 이란 dwell 이라는 뜻이구요, akhim 은 형제들, gam 은 gather, yakhad 는 together 입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가?” 제가 히브리 말로 이 첫 소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히브리 시이고 그 운율과 뉘앙스를 느껴보시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Hine, ma tov wu ma naim, shebet akhim gam yakhad."
우리 말이 아니니 그 느낌을 깊이 느끼긴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에 가락을 붙여서 이 아름다운 삶을 노래했습니다.

2. 조화로운 삶, 아름다운 삶

이렇게 낭만적인 노래지만 함께 사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인백색(白人白色)이라는 말이 있죠. 백 사람이 있으면 백 가지 색깔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도 하나로 맞추어 살기 힘든데 백 사람이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인간(人間)이라는 말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란 '사람 사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다른 이들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익힐 때 성숙해집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 옳고 내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할 때는 그가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넉넉함이 있을 때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용납하는 태도는 어른이 가진 특징이죠. 여기에 앉은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 없겠습니까? 나와 다른 이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과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어울려 함께 살다'를 '연합하여 동거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려면 그가 얼마나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가를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를 이루고,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백 가지의 색깔을 가진 백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예술가들은 백 가지의 색깔을 조화롭게 믹스해 냈으므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색이지만 옆의 색 때문에 서로의 색깔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중학교 미술 시간에 '색상 대비'라는 것을 배운 적 있습니다. 일정한 색깔이 인접한 다른 색깔 때문에 달라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빨간 색은 초록색 한 가운데 있을 때 더 선명하고 두드러져 보이죠. 노란 색은 검정색 한 가운데 있을 때 더 돋보이는 것이구요. 나 혼자서는 그렇게 돋보이지 않지만 다른 이가 내 옆에 있어줌으로 나도 더 두드러지고 그도 더 빛나는 신비로운 현상이죠. 예술가들은 이 독특한 색깔의 조화를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혼자서 일으킬 수 없는 감동과 아름다움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즐거운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기름과 이슬

이 시에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두 가지 메타포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과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입니다. 기름과 이슬이 상징하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기름을 어떻게 노래하는 지부터 들어볼까요?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라고 노래하고 있네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을 성별할 때 사용하는 기름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흘러넘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 구별된 사람들이 넘친다는 뜻이겠죠.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신앙공동체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 장 9 절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는 제사장의 duty 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머리를 타고 옷깃에 흐르는 기름은 그의 소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고 죽이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나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름다울 때는 자기의 소명을 알고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색깔을 낼 때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 가르치는 이, 봉사하는 이, 섬기는 이, 말씀 선포하는 이 등 우리의 소명과 은사는 다양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에베소서 4:12).”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색깔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꼭 감춰두지 마시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각자가 가진 은사를 통해 봉사하고 섬길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집니다.

두번째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헤르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로 빗대고 있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과 같구나.” 이슬하면 한국의 유명한 술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슬이 상징하는 것은 신선함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이슬과 같다고 하면 그것은 칭찬입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팔레스틴 땅에 내리는 아침 이슬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항상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룬 공동체는 이슬 같은 신선함과 생명을 세상에 전한다는 뜻이겠죠.

4. 조화의 결과, 영생

이러한 조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백인백색의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가 아름답게 순기능을 발휘한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가치가 있는 삶’을 영생이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 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Accepted 됐다는 것을 Accept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구원의 감정을 느낄 때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 졌다는 것을 느낄 때였습니다. 아버지 품안에 안길 때가 탕자에게 영생의 삶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것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란 온통 나에게로 향하여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이미 용납되었음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3 장 14 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의 공동체를 이 땅 위에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저 천국에까지 이어질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구약 성경은 저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맛보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죽어서 저 안드로메다 어디매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 위에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교회를 구원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보여주라는 숙제가 영생공동체인 교회의 숙제인 것입니다.

5. 공동체를 살아 내기

이 숙제를 2 년 전 첫 설교를 통해 함께 풀어가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했었는데, 숙제 잘 해 오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숙제를 잘 해오고 계시다는 증거 중 하나는 제가 이곳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설 땅이 되어주었기에 저는 이곳에서 새롭게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의 헤세드를 잊지 못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가면서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아예 교회에 다녀보지 않았던 분들이 적응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에게 구원이나 영생이란 기독교 용어나 종교적인 분위기가 너무 생소할텐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한 탓이겠지요? 막연한 영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니 그들이 몸으로 구원과 영생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더 아름다워집니다. 하모니는 내가 나의 음을 정확하게 낼 때 만들어집니다. 내 개성과 색깔을 잃지 않고 내 음을 내지만 다른 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 어울어지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음의 조화가 하모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것이죠. 나의 은사나 나의 특징 또는 나의 나뉠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뤄내는 삶입니다.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교회란 조화와 평화를

연습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세상이야 말로 천국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서로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의 소그룹인 목장입니다. 목장에 열심히 동참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그곳에서 열심히 아름다운 삶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연습하십시오. 나와 다른 이들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돋보이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자주 식탁의 모임을 가지십시오. 식탁이야 말로 환대의 공간이자 상생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둥그런 상에 모인 식구가 한술밥을 같이 먹는 것보다 아름다운 그림은 없습니다. 시편 23 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 앞에서 자기에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원수와 화해하여 한술밥을 먹게 되었다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평화의 공동체, 영생의 공동체를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본적 있습니다. 그가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던 시기에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부랑자들이나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영생의 삶을 광야에서부터 실험한 것입니다. '다하나'라는 말에는 여럿이 함께 한다는 뜻이 숨어 있고, 모두가 한 꿈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 집사나 장로 권사 같은 직분을 없애고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자고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로 불리지 않을 겁니다. 천국의 삶에 어울리는 호칭이야 말로 형제 자매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직함을 부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 한국 문화이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직을 왜 없애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온 제사장, 사도, 감독 같은 직분은 현재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시대에 분명 집사가 있었지만 바울은 모두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기를 즐겨 했습니다. 익숙지 않더라도 호칭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가치를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미국내 이민교회들 중에 직분을 없애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와 같은 노력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뉴저지에서 두 교회를 만났고 그 중 하나는 저희와 같은 장로교 교단 교회였습니다. D.C.에서는 감리교 교회 중 300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7 년 넘게 실천해 오고 있더군요.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 이루는 영생의 공동체는 우리 주님의 꿈이며 우리가 이 땅 위에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기름부음이 넘치고 이슬처럼 생명력 넘치는 영생공동체가 이 땅 위에 만들어지기를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합니다 .